

닛신보 - 모든 공장이 제휴하여 개발 공동 추진

닛신보의 미아이(美合) 공장을 비롯하여, 하리자키(針崎), 시마다(島田), 후지에다(藤枝), 도야마(富山)의 여러 공장과 데님 제조 가공 판매 자회사인 닛신 데님 공장은 서로 제휴함으로써 공동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다. 각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방직, 제직, 가공 단계에서 평상시에 떠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토의를 거쳐 살림으로써 공동으로 신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.

각 공장에서는 얼마 전부터 서로 제휴하여 개발하고 있었다. 미아이 공장에 있는 상품 개발 센터에서는 2년 전부터 각 공장의 개발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개발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조직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. 이 회의에서는 평상시의 작업 중에 생긴 아이디어를 상품 개발에 살린다는 것이 특색 있는 신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.

그 중에서 상품화하여 2005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게 된 것이 “퓨어 트위스트(Pure-twist)” 직물이다. 방직 공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방직한 특수사에 가장 적합하게 직물을 설계하고, 이에 알맞은 가공을 곁들여서 드레이프성이 좋고, 구겨지지 않는 내추럴 스트레치(natural stretch)성의 특징이 있는 직물이 완성되었다. 이 특수사는 태번수에서 세번수까지 방직할 수 있어 이너, 셔츠, 팬츠감까지 다양한 용도를 개발하고 있다.

닛신보는 앞으로 산하의 모든 생산 공장이 철저하게 제휴하여 보다 더 활발하게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, 개발한 소재로 만든 최종 상품의 정보는 생산 공장에 피드백하여 신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♣